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⑥

如是虛妄自他境界 察其根出
여시허망자타경계 찰기근출
不隨傾動 全身定實 守護心性
불수경동 전신정실 수호심성
增長觀照 寂爾有歸 活然無間
증장관조 적어유귀 활연무간
當是時也 愛惡自然淡薄
당시시야 애오자연담박
悲智自然增明 罪業自然漸除
비지자연증명 죄업자연단제
功行自然增進 煩惱盡時
공행자연증진 번뇌진시
生死即絕 生滅滅已
생사즉절 생멸멸이
假現前用 應無窮度 有緣眾生
가현전용 응무궁도 유緣眾生
是爲事人分上 無漸次中漸次
是爲事人分上 無漸次中漸次
시위요사인분상 무점차중점차
無功用中功用也
무공용중공용야

저 자신의 성품이 청정하고 묘한 마음임을 알고는 그 성품을 의지해서 참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예로부터 스스로 불심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요긴한 방법인데, 어찌서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통지혜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만약 신통력을 나타낼 수 없다면 어찌 참다운 수행자라 하겠는가.

予笑曰神通智慧 隨自正信佛心力
여소왈신통지혜 수자정신불심법력
加行用功而得之 比如磨鏡
가행용공이득지 비여마경
垢漸盡而漸明 明現則影像
구점진이점명 명현즉영상
千差若也信解未正 功用未深
천차약야신해미정 공용미심
昏昏坐睡 昏昏坐睡
혼혼좌수 혼혼좌수
以守默爲禪則可有神通自發也
이수묵을禪則可有神通自發也
先德曰汝等 但向自己性海
先德曰汝等 但向自己性海

이렇듯 허망한 자타(自他)의 경계, 그 근원을 살펴서 치우치게 움직이지

자기가 불심과 법력 바로 믿고 실천해야만 신통지혜 얻는다

않고 몸을 안정하여 심성(心城)을 잘 지키면서 관조(觀照)해 나간다면 결국 고요한 데로 들어가서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때 사랑하고 미워함도 담박해지고, 자비와 지혜가 더욱 밝아지고, 죄업이 사라지고, 공행(功行:공덕이 되는 수행)이 자연히 불어나서 번위가 다하게 되면 생사가 곧 끊어지고 생멸도 사라져서 고요함과 밝은 지혜만이 앞에 나타나서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어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점차(漸次:순서를 밟아나감)가 없는 가운데 점차이며, 공용(功用:언행 일체를 말함)이 없는 가운데 공용이니라."

선덕알여등 단장자기성해
如實而修 不要三門六通 何以故
여실이수 불요삼명육통 하이고
此是聖末邊事
차시성말변사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신통지혜는 자기가 불심과 법력을 바로 믿고 실천하는 공에 따라 얻는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을 때, 때가 차츰 벗겨지면서 밝음이 점점 드러나 그 밝음 속에 천 가지 물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만약 믿음과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공을 들이는 것이 깊지 못하여 명칭하게 앉아 즐기만 하고 침묵하는 것을 선(禪)으로 삼는다면 어찌 신통이 일어나겠는가. 선덕께서 '너희들은 단지 자기 성품의 바다를 향해 수행해 나갈지언정 삼명(三)과 육통(六)을 바라지 말라. 이런 것은 성인의 일 중에 가장 하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如今且要盡心達本 但得其本
여금차요심심달본 단득기본
莫愁其末
막수기말

그러니 당장 마음을 알고 근본을 통달하여 단지 그 근본을 얻는 일이 중요하지 하찮은 일에 근심하지 말라. 김원익(시인·역경위원)

問曰汝今解說者 先須信解自身
문왈여금해설자 선수신해자신
性淨妙心 方能依性修禪
성정묘심 방능의성수선
是乃從上已來 自修佛心
是乃從上已來 自修佛心
시내종상이라 자수불심
自修佛道之要術也
자수불도지요술야
何故凡見修禪之士 不發神通智慧乎
하고범견수선지사 불발신통지혜호
若無通力可現 則何名如實修行者也
약무통력가현 즉하명어실수행자야

물었다.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먼

큰 스님과의 대화

이두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지난 10월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신 이두스님을 주석하고 계신 청주 관음사에서 만났다. 폐사지였던 관음사는 스님께서 수년간의 걸쳐 불사에 헌신하신 결과 청주의 포교중심도량으로서의 사격(寺格)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이두스님은 원로가 앞장서 '종단과 후학들이 바른 방

향으로 갈수 있도록 덕(德)과 행(行)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원로의 소임이 막중함을 강조하셨다. 병을 앓고 나신후 회복기에 들어선 스님께서는 최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하고 계시다고 주위에서 귀띔한다. 그래서인지 본래 원만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더욱더 해맑게 보였다.

“마음 무한토록 넓게 쓰세요”

- 불교는 세계최고의 역사가, 과학자들까지 매료될 정도로 매우 과학적이고 심오한 종교임에도 오히려 일부 불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기보다는 어떤 신이 한 일에 의존해 만사형통을 바라고, 내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밖으로 허상을 쫓기 일수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우당비라 파문'이 이를 대변하지요.

어지럽고 시시비비가 얽혀있는 현실에 파사현정의 장군준비로 경책을 해야 할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요.

▲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현실생활과 유리된 종교인 것처럼 되어 있고 기도나 하고 영험이나 생각하며 이론적 인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교처럼 과학적이고 생활적이며 합리적인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불교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역불승유정책의 조선왕조 5백년동안 불교는 역사참여의 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은둔자처럼 지내왔습니다. 결국 역사와 현장에서 소외된 불교는 몰락의 일로에서 사람들의 눈에 비사회적 종교로 격하된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지요.

그러나 가장 현실참여적이고 사회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역사가 불교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포교의 일선에 선 불교포교사나 신도들 각자의 자각과 노력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자들이 부처님가르침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일반 사람들의 불교인식도 변합니다. 무조건 영험이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복을 내려주는 분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 요즘 금강원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부정부패로 서민들은 열심히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는 도리어 심각해지고 사람들도 양심과 도덕을 지키기보다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아보겠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다종

- 1929년 강원도 김화 생
- 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 56년 동화사 강원 대교과 졸업
- 59년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71년 김사 주지
- 78년 법주사 주지
- 91년 방글라데시·치타공 팔리대 철학박사
- 2000년 8월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 2000년 10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재 청주 관음사에 주석
- 저서에 <금강경 공상(空性)의 연구> <금강경·원각경 강설> <운수법담> <산속에서 산을 보는 법> 등



것이나 빼앗긴 것은 받지 않으려 해도 받게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인과의 원리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은 자명한 이치예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삶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면 안됩니다. 근본 마음을 알고자 정진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한만큼 얻는것이 마음공부에요.

- 불자로서 바른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삼세 인과를 확신하고 연기법을 믿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 미국 링컨 대통령때 일화를 얘기해 볼까요. 한 친구가 한사람을 천거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친구가 소개한 사람의 얼굴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을 거절했어. 그러자 그 친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생각이 얼마나 건전하고 성실한가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야지, 다만 얼굴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쓰지 않기로 한 자네의 태도가 경솔하지 않은가"라고 나무랐어요. 링컨은 "자고로 마흔이 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하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나 그사람 생활의 모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네" 링컨의 이 말처럼 중년이 넘는 사람은 생활의 갈래대로 얼굴모습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현명생 교육에 몸바친 사람이나 수행자의 얼굴, 정치가의 얼굴과 백수건달로 지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모두 다를 것은 자명하지요. 아무리 분장을 하고 표정을 꾸며도 그 차이는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안에 잠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었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의 얼굴은 어느덧 악하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다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 업의 실제예요. 운명을 지배한다는 힘을 일컬어 업과, 업이라고 합니다. 업과 업과는 결코 한번 죽는 것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업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도 방향이나 형식을 바꾸어 새로운 업을 또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상태를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업보

리를 널리 펴라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불자들의 사명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불자들도 그냥 절에 다니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명확히 알고 내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수단을 쓰든,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돈을 많이 모아 권력을 잡아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빼앗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과의 도리는 엄격합니다. 남의 것을 거저 얻거나 빼앗은 것은 자기 삶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주어야 하며 남에게 준

길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길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길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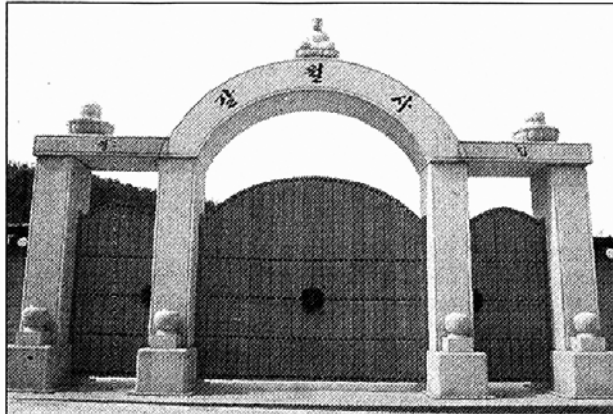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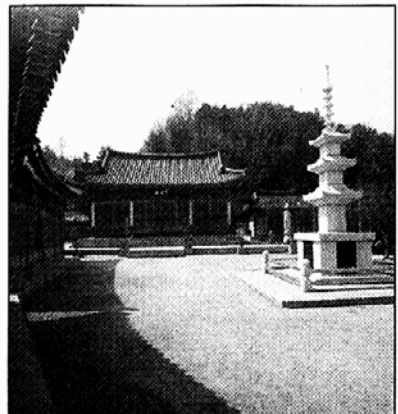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휴돈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벗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길월사 경내



길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울창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드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길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길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정문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견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